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섭으로 사수하자!

**1 면에서 계속**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 관리하고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이 낮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이라고, 온 나라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판의봉사시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대중목욕탕, 리발실, 운동치료회복실 등으로 이루어진 편의봉사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잘했으며 마술적이고 푸린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 종업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 하시였다.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사소한 예로와 불편이 있을새라 세심히 보살펴주는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여 종업원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가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투쟁의 길을 걷어가는 인민들의 열정에 감동하시였다.

당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는 불라는 애국심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길에서 자기들의 일리에 찾아오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의 《3. 조국의 자주적통일위하여》를 퍼키스탄 비도리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4월 3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 사장 할리드 사르다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자주적통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연설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펴내시어 자라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4월 5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 편집부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간주한다.

조선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은동지의 필생의 념원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이 민족적수호인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랑스공화국 대통령당선자  
에 마누엘 마크롱 각하**

나는 당신이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지되는데 대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이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5월 8일

## 사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최근 농업부문에서 가물피해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4월 하순부터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지방의 대부분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밭, 보리들과 강냉이포기들이 가물피해를 당기 시작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으로 올라가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선바람도 자주 불어 가물현상이 더 심해졌다. 기상수문국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5월 15일까지 우리 나라의 여러 전방지역에서 가물을 극복할만 한 큰비는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1-2차의 비가 내릴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것은 당이 제시한 일과목표를 집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안으로 되고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일과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일념을 안고 농사일을 앞설것에 다그쳐 왔으며 전제 인민들도 농촌을 돌보아주며 지원하였다. 당의 농사제일주의방향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헌신적노력이 훌륭한 자결심을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현시기 가물피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한해농사에서 불이 제일 절실시,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진에 심은 밭, 보리에서 이삭이 나오기있는 지금 가물피해를 막으면 전일실황과 어불불이 심히 떨어지게 된다. 강병이도 생초초기에 가물피해를 일으킨 총아가 생기고 정묘방 수확고가 감소된다. 물이 부족하면 영양단치모양제임기와 모내기도 제철에 질적으로 할수 없다. 가물피해막이이자 일과생산이 고농업생산산과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병역을 완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초강도체제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을 허물고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것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用心이다. 원수들이 발악할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파고파기 맛만아 뚫고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 분배이다.

전제 인민이 펼쳐나 가물피해를 막고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기상이 남김없이 펼쳐질수 있다.

가물피해는 결코 오늘날 새마을을 건설할 문제도 아니다. 최근년간만 농경지보다도 심한 가물과 고온현상이 계속 나타나고있으며 지속되고있다. 조건과 환경은 매우 어렵고 불리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불원천을 적극 찾아 효과있게 리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실은 하늘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발붙이고 자기 힘으로 이룩하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엄혹한 자연을 이겨내고 높은 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물피해는 결코 시간을 다루는 사업이다.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가을과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 당은 전제 인민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가물피해를 막고 당면한 농업공정을 힘있게 추진시켜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의 승리를 올릴것을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령도에 마련된 대규모의 자연로림식관개계와 기술적도구가 있고 온갖 자연피해를 극복하며 농사에서 혁신을 이룩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가물피해의 투쟁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봉호를 지켰다는 자각, 자기들도 농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물주기작업을 무조건 집행하여 밭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총발동되며 운수수단들을 만가동시켜야 한다. 해당지역의 소형방조, 원동기, 강우기, 물호스 등 물주기용 필요한 모든 설비, 기자재들을 빠짐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와 전력공업부를 비롯한 해당 상, 중앙기관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연유와 전력, 농기계부속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물원전투사업용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도시, 군에서 관개수조물들을 공급해 보충시키고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골로와 우물을 파고 줄방울을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리며 지방의 특성에 맞게 크고작은 물원전투를 대대적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모박이와 강바다과기를 힘있게 내밀어 흘려보내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창조적적극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 이신자적의 모범으로 농촌전선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양수동력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앞선 관수방법, 실정에 맞는 관수방법을 찾아내며 모든 논밭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가물피해가 나타나거나 가물을 할수 있는 조건들부터 관수하여야 한다. 밭, 보리의 어불불과 전일실황을 높일수 있게 이노노신방법 원수복합비료, 성장촉진제 등으로 일과, 자기들도 농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물주기작업을 무조건 집행하여 밭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총발동되며 운수수단들을 만가동시켜야 한다. 해당지역의 소형방조, 원동기, 강우기, 물호스 등 물주기용 필요한 모든 설비, 기자재들을 빠짐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와 전력공업부를 비롯한 해당 상, 중앙기관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연유와 전력, 농기계부속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물원전투사업용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도시, 군에서 관개수조물들을 공급해 보충시키고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골로와 우물을 파고 줄방울을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리며 지방의 특성에 맞게 크고작은 물원전투를 대대적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모박이와 강바다과기를 힘있게 내밀어 흘려보내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밭, 보리의 어불불과 전일실황을 높일수 있게 이노노신방법 원수복합비료, 성장촉진제 등으로 일과, 자기들도 농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물주기작업을 무조건 집행하여 밭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